

훈민정음과 일본어 표기

— 사역원 역학서를 중심으로 —

정승혜(수원여대)

1. 세종의 어문정책과 훈민정음의 창제 목적

훈민정음이 만들어진 세종조의 어문정책(語文政策)은 그 시대의 다른 정책과 함께 고찰되어야 한다. 집현전(集賢殿)과 경연(經筵)을 뒷받침으로 하여, 고제연구(古制研究), 육진(六鎮)의 개척, 법령의 정비(整備), 고려사의 편찬 등 ‘우리 것’에 대한 인식과 자각에서 우러나온 여러 시책이 펼쳐지던 시기에 우리의 고유문자인 훈민정음(訓民正音)이 창제되었고, 어문정책도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이들 가운데에서 세종시대에 전개된 어문정책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강신항 1987: 2-3).

- (1) 고유문자인 훈민정음의 창제
- (2) 외래어음인 조선한자음의 정리 — 표준 조선한자음의 설정
- (3) 중국 본토 표준자음의 표시 — 표준 중국자음의 제시
- (4) 인근 제민족어 학습을 위한 사학(四學: 漢, 蒙, 女眞, 倭學)의 권장

이들은 상호 밀접한 관련 아래 유기적으로 진행된 사업으로서, 고유문자인 훈민정음은 백성들에게 표기수단을 마련해 주기 위한 것이었으나, 동시에 나머지 세 개의 문제도 해결해 주어야 하는 필요성에서 창제된 것이었다. 따라서 훈민정음은 다음의 세 가지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될 문자였다.

- (1) 순수한 국어의 표기

- (2) 개정된 조선한자음의 완전한 표기
- (3) 외국어음의 정확한 표기

실제로 명(明) 태조의 흠찬운서(欽撰韻書)인 『홍무정운』의 역훈(譯訓)이 중국어 학습에서 한어(漢語)의 규범음, 즉 표준음을 훈민정음으로 전사한 것이었다면, 일본어 역시 『이로파(伊路波)』의 일본 가나문자를 훈민정음으로 표음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발표에서는 이와 같은 전제하에 사역원 왜학서에 나타나는 훈민정음의 일본어 표기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단, 일본어의 음운사에 대해서는 기존의 연구에 의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2. 사역원(司譯院)과 역과(譯科) 왜학(倭學)

조선시대의 사역원은 사대교린(事大交隣)의 외교적 임무를 수행하고¹⁾ 통역을 담당하던 역관을 양성하고 관장하던 관청이다. 사역원은 고려 충렬왕 2년(1276)에 설치된 ‘통문관(通文館)’을 후일에 ‘사역원’으로 개명한 것이며 조선 건국 초기, 즉 태조 2년(1393)에 다시 설치되어 갑오경장(1894)으로 폐지되기까지 5백여 년간 유지되었던 외국어 교육과 역관을 관리하는 곳이었다.²⁾

- 1) 조선조 외교정책의 기본노선은 흔히 ‘事大交隣’으로 표현되었다. 19세기 말 開化期 이래, ‘事大’라는 표현은 ‘事大主義’와 결부되어, 우리에게 치욕의 역사를 연상시키는 단어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사대교린’에서 ‘事大’는 근본적으로 ‘交隣’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당시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나라와의 우호관계는 ‘事大’, 기타 인접국과의 우호관계는 ‘交隣’으로 표현하였던 것이다. 이는 마치 유교의 전통적인 4대 덕목인 ‘忠孝義信’이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덕목인 점에서는 같지만, 상하 관계는 ‘忠孝’, 대등관계는 ‘義信’으로 표현한 것에 비견될 수 있을 것이다(정광·윤세영·송기중 1992: 2307-2308).
- 2) 사역원의 연원은 태봉의 사대(史臺)와 신라의 왜전(倭典)까지 소급된다. 역관은 중국의 주례(周禮)에서 ‘寄, 象, 狄鞮, 譯’으로 불리던 통역관을 말하며 ‘상서(象胥)’라고도 불린다. 이들을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수(隋), 당(唐), 송(宋)의 홍로시(鴻臚寺) 등과 명(明)의 사이관(四夷館), 회동관(會同館), 청(淸)의 사역관(四譯館) 등이 있었다(정광 1990). 사대 외교의 문서를 작성하던 승문원(承文院)을 괴원(槐院)이라 부르던 것과 같이 사역원은 주례에 따라 상원(象院)으로 부르기도 했다.

태조 2년 사역원이 설치되었을 때 한어(漢語, 중국어) 과정이 설치되었고, 기록에는 확실히 나타나지 않으나, 몽어(몽고어) 과정도 동시에 개설되었던 듯하다.³⁾ 왜어(일본어)는 태종 15년(1415), 여진어는 세종 8년(1426)에 설치되었다. 이 4개 언어의 학습 및 제도상의 명칭을 한학, 몽학, 왜학, 여진학이라 하였고, 합하여 ‘사학(四學)’으로 불렀다. 17세기 전반 중국에서 명조(明朝)를 대신하여 청조(淸朝)가 들어선 후(1669)에는 여진학이 청학(淸學:만주어학)으로 개칭되었다.

조선시대의 과거제도에서 역과(譯科)⁴⁾는 조선왕조의 외교정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역관 충원을 목적으로 국초부터 실시되었다. 역과 역시 한어·몽어·여진어·왜어의 4과가 있었는데 한어과는 국초부터 실시되었으나 몽어과는 세종 1년(1419) 4월에,⁵⁾ 왜어과는 세종 23년(1441) 7월 이전에,⁶⁾ 여진어과는 문종 1년(1451) 4월에⁷⁾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역학서의 서명은 『세종실록』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한다⁸⁾. 역생들의 외국어 학습 교재인 역학서는 그들을 시험하여 역관에 임명하는 출제서로서 『경국대전』에 규정되어 구한말까지 지속된다. 일단 법전에 규정된 역과 및 역관 취재의 과시서들은 좀처럼 바뀌지 않고 사역원 등에서 각종 시험에 대비하여 사용하는

-
- 3) 이는 「조선왕조실록」의 태조 3년 11월 19일의 기사 가운데 사역원 제조 설장수(契長壽)의 상소문 속에 한학과 함께 몽학에 대한 언급이 있다는 사실로도 알 수 있다.
- 4) 조선시대의 과거제도에서 잡과(雜科)는 역학(譯學), 율학(律學), 의학(醫學), 천문학(天文學), 지리학(地理學), 명과학(命課學), 산학(算學), 화학(畫學), 악생(樂生), 도류(道流) 등인데 소속된 각 관아에서 교육을 시키고 식년시(式年試), 증광시(增廣試) 등 다른 과거와 같이 시험을 보고 자격을 주고 혹은 스스로 배우고 습득한 자를 시험하여 자격을 주고 등용하였다.
- 5) 「세종실록」 권3, 세종 원년 4월 경인조.
- 6) 「세종실록」 권93, 세종 23년 7월 정미조.
- 7) 「문종실록」 권7, 문종 원년 4월 을해조.
- 8) 조선시대의 각종 문헌에는 80여종의 역학서가 그 서명을 보여준다. 즉 『조선왕조실록』의 곳곳에서 역학서의 서명이 보이고, 『경국대전(經國大典)』을 비롯하여 역대 편찬된 제법전에서 역관의 취재(取才)와 역과 등의 출제서로서 역학서의 이름이 수록되었다. 『通文館志』에는 역시 과시(科試)와 취재(取材)시용(試用) 서책목록이 보이고, 또 사역원 장서와 장판목록에도 일부 등장한다. 그 밖에도 『증보문헌비고』 등에 서명이 소개되어 있다.

외국어 교과서가 되었다.

그러나 언어는 변화하는 것이어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우리말과 상대국의 언어가 변화하고 그에 맞추어 역학서 역시 개편되었다. 역학서의 개정은 『경국대전』에 규정된 역과 및 역관 취재의 출제서를 바꾸게 된다. 그러나 법전의 변경은 대단히 어려운 일로서 사역원을 비롯한 외국어 교육기관에서는 같은 서명의 역학서를 수정하는 방법으로 역학서를 개정하였다.

이 가운데 일본어 학습서인 왜학서의 서명을 살펴보자. 『세종실록』 권47 세종 12년의 상정소(詳定所)의 계(啓)에 의하면, 왜훈(倭訓)으로 ‘소식(消息), 서격(書格), 이로파(伊路波), 본초(本草), 동자교(童子教), 노걸대(老乞大), 의론(議論), 통신(通信), 정훈왕래(庭訓往來), 구양물어(鳩養勿語), 잡어(雜語)’ 등 11종의 왜학서가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경국대전』의 역과 출제서에는 여기에 ‘응영기(應永記), 잡필(雜筆), 부사(富士)’가 더해져, 14종의 왜학서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왜어)노걸대’는 사역원에서 편찬한 것으로 보이므로 별도로 하고 13종의 왜학서는 주로 당시 일본에서 사용되던 훈몽(訓蒙)교과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첩해신어(捷解新語)』는 임진왜란 후 사역원에서 일본어를 학습하기 위해 편찬한 대표적인 왜학서이다.⁹⁾ 『첩해신어』는 현재 원간본과 그의 복각본, 1차 개수본의 복각본(『개수첩해신어』, 파리 동양어학교소장), 그리고 2차 개수본의 중간본(『중간첩해신어』, 규장각 등 소장)의 3종이 알려져 있다.

역과의 과시서는 아니었으나, 역관들이 일본어 학습을 위해 간행한 『인어대방』과 대역 어휘사전이라 할 수 있는 『왜어유해』가 남아 있다. 또한 18세기말부터 19세기에 이르기까지 대마도의 통사(역관)들이 사용했던 한국어 교재를 일본어 교재로 사용하기도 했는데, 대표적인 예가 『교린수지』이다. 이 가운데 훈민정음(한글)으로 일본어 주음을 표기한 자료인 성종대 조선판 『이로파』, 『첩해신어』류, 『왜어유해』 및 『방언집석』을 대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9) 책 이름의 ‘捷解新語’는 ‘새 말을 빨리 깨우친다’는 뜻으로 여기서의 ‘新語’는 임진왜란 이후 실제로 일본인들에게 배운 새로운 일본어를 말한다.

3. 왜학서의 개관(概觀)

3.1 이로파(伊路波): 1492년(成宗23년)

『이로파(伊路波)』는 한글로 표기된 가장 오래된 일본어 학습서이다.¹⁰⁾ 1492년(成宗23년; 弘治5년)에 만들어진 조선판본이 일본 다카마츠(高松)시에 있는 가가와(香川)대학 간바라(新原) 문고에 소장되어 있다. 서문이나 발문이 없어 이 책의 편자나 편찬과정은 알 수 없으나 『세종실록』과 『경국대전』 등에 역과 왜학의 과시서로 이름을 남긴 ‘이로파(伊路波)’의 일본어 가나(假名) 문자를 사역원 자체에서 한학서의 예에 따라 훈민정음으로 그 발음을 전사한 것으로 보인다(정광 1991, 147). 본래 일본의 『伊路波』는 일본어의 가나(假名) 문자 ‘いろは’를 한자음으로 표기한 것으로 일본의 동몽(童蒙) 교과서 중에서 가장 초보 단계인 ‘假名遣(가나 문자 사용법)류’에 속하는 교재이다. 당시 일본에서는 가나 문자의 여러 체식, 예를 들면 ‘片假名(かたかな), 平假名(ひらがな), 眞字(まな), 萬葉假名(まんようがな)’ 등의 자형이 있어 아동들에게 이를 먼저 학습하게 하였다. 한자로는 ‘イロハ、伊呂波, 以呂波, 色葉’ 등으로도 쓰인다.

조선판 『伊路波』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1부에서는 ‘片假名(かたかな), 平假名(ひらがな)’ 등 가나문자의 4체자(4종의 문자체)를 보이고 각 글자의 음가를 훈민정음으로 표음하였으며 변체(變體)가나(萬葉가나의 일종)와 같은 자형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2부에서는 2편의 서간문을 들어 가나문자 학습의 독본으로 하였다. 2부의 서두에 ‘伊路波合用言語格’이라는 제명이 보여 앞의 왜학서 가운데 ‘서격(書格)’ 등과 같은 가나문자 학습서와 합철하여 같은 ‘이로파(伊路波)’라는 이름으로 간행하였을 것으로 추측한다. 다음 표는 조선판 『이로파』를 이기문(1965: 7-8)에서 정리한 것을 재구성한 것이다.¹¹⁾

10) 훈민정음으로 일본어를 표기한 것 가운데 가장 오래된 기록은 신숙주가 일본을 다녀와서 쓴 『해동제국기』(성종2년: 1471년)에 부재된 ‘語音翻譯’이다. 여기서는 사역원 역학서를 대상으로 하므로 제외하기로 한다. 이에 대해서는 별고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ア	아	イ	이	ウ	우, 우	エ	에	オ	오
カ	가	キ	기	ク	구	ケ	계	コ	고
サ	사	シ	시	ズ	수	セ	서	ソ	소
タ	다	チ	디	ツ	두	テ	테, 더	ト	도
ナ	나	ニ	니	ヌ	누	ネ	녀	ノ	노
ハ	바, 하	ヒ	비, 피	フ	부, 후	ヘ	헤	ホ	부, 호
マ	마	ミ	미	ム	무	メ	메, 며	モ	모
ヤ	야			ユ	유			ヨ	요
ラ	라	リ	리	ル	루	レ	레	ロ	로
ワ	와	ヰ	이			ヱ	에	ヲ	오

3.2 첩해신어(捷解新語): 숙종2년(1676년) / 원간본

임진왜란 이후 왜학서는 완전히 개편된다. 즉 『경국대전』에 역과 왜학의 과시서로 규정된 14종의 왜학서는 주로 일본의 室町시대에 사용된 훈몽서들을 수입하여 일본어 교재로 사용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왜학서가 왜란을 겪으면서 실제 일본어 학습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이 인식되어 한어의 『노걸대』와 같이 왜학 역관의 실제 임무와 관련된 회화 중심의 교재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요구에 응하여 편찬된 것이 강우성(康遇聖)의 『첩해신어』이다. 임진왜란 이후 사역원의 일본어 교육은 거의 『첩해신어』에 의존하였다. 이 책은 왜학역관의 임무에 알맞은 내용의 회화를 중심으로 편찬되었으며 이러한 실용성 때문에 다른 왜학서들은 모두 그 사용이 폐지되었다. 『첩해신어』에 나타나는 일본어 주음은 훈민정음을 이용하여 일본어문자의 발음을 음성 전사(音聲轉寫, phonetic transcription)하는 방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3.3 개수첩해신어(改修捷解新語): 1748년(영조24년) / 1차 개수본

『첩해신어』를 개수(改修)한 책. 내용은 원간본과 그리 다르지 않으나, ‘절목

11) 위의 표에서 두 개의 음이 전사되어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전자는 ‘몽, 붕, 풍’ 등 외국어 전사법의 특수한 체계를 보여주고 있음에 대하여, 후자는 실제로 사용된 예, ‘ヒ: 一 피도’, ‘ホ: 程 혼도’ 등과 같이 당시 국어의 음운체계에 적용된 체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본다. 말하자면 전자는 이상적 체계이고 후자는 실제적 체계라 할 수 있다.

설정'이나 '주객표시'를 통해 공적인 회화장면을 나타내어 주며, 표현의 규범을 명확히 함으로써 대화에 안정감을 주었다. 서문을 통하여 흥계회를 정사로 한 '정묘통신사행(丁卯通信使行: 1747 - 1748)'에 따라간 여러 역관들이 원간본 『첩해신어』를 가지고 가서 일본측 안내자들과 서로 묻고 따져 내용을 수정하였고, 귀국 후 제1차 개수본을 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첩해신어』는 2차에 걸쳐 개수가 이루어졌는데, 1차 개수본의 복각본으로 추정되는 것이 현재 파리 동양어학교에 소장되어 있다.

3.4 개수첩해신어(改修捷解新語): 1762년(영조38년) / 2차 개수본

『첩해신어』 1차 개수본을 영조 38년(1762) 최학령(崔鶴齡)이 연재(捐財)하여 개수출판한 책이다. 『첩해신어』의 제2차 개수는 계미통신사행 이전인 1762년에 이루어졌는데,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에 영조 37년(1761년) 4월에 최학령이 사력을 들여 12권 가운데 4권을 수정하여 이 가운데 3권을 진상하였고, 영조 38년(1762년) 9월에 제2차 개수를 모두 마쳐서 임금께 바쳤다는 기록이 있다(정승혜 2007 참조).

3.5 방언집석(方言集釋): 정조2년(1778년)

한어-한국어-만주어-몽골어-일본어 등 5개 언어의 어휘를 의미에 따라 배열에 놓은 분류 대역 어휘집으로, 서명응(徐命膺)의 시문집인 『보만재잉간(保晩齋剩簡)』의 제24·25책에 수록되어 전하는 4권 2책의 필사본이다.

이 책은 서명응(徐命膺)의 주관 아래 한학 역관 홍명복을 비롯하여 청어·몽어·왜어의 역관들이 관여하여 편집되었고, 1778년(정조 2)에 『규장운서(奎章韻書)』와 함께 진헌(進獻)되었으나 4년이 지나도록 간행되지 못하였다. 이에 서명응이 서를 붙여 『보만재비급(保晩齋秘笈)』으로 수록하였다가 뒤에 『보만재잉간』으로 재수록한 것으로 보인다. 현존 『보만재잉간』은 원래 25책으로 추정되는 필사본이지만, 현재 13책만 전하는 꺾본(闕本)이다. 이 책의 권두서명이나 서문 서명은 '方言類釋'으로 되어 있는데, 뒤에 '類'자 위에 '集' 또는 '輯'으로 고쳐져 지금까지 전한다.

3.6 중간개수첩해신어(重刊改修捷解新語): 1781년(정조5년) / 2차 개수본의 중간본

최학령의 『첩해신어』 2차 개수본을 목판으로 간행한 것이다. 이 책은 최학령이 사력으로 활자인행했던 2차 개수본이 시간이 흘러 없어지자, 사역원의 제거로 있던 김백곡(金栢谷)이 그 책을 전하기를 권장하였고, 마침 김형우(金亨禹)가 재물을 내어 장인을 모아 최학령의 활자본을 목판으로 복각한 것이다. 이 책을 형식면에서 1차 『개수첩해신어』와 비교하면, 본문의 수정과 함께 ‘절목’ 및 ‘주객표시’의 수정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권1에 절목이 설정된 것은 1차 개수본부터인데, 1차 개수본에서는 권10에 ‘절목’이나 ‘주객표시’가 없었으나 2차 개수본은 새로 ‘주객표시’와 ‘절목’들을 설정하여 놓았으며, 각 권마다 일부 절목들의 수정이 있었다. 또한 『중간첩해신어』가 앞의 책들과 차별화된 것은 가나학습을 위하여 제10권 권말에 ‘伊呂波眞字半字竝錄, 伊呂波吐字, 伊呂波合字, 伊呂波眞字草字竝錄, 簡格語錄, 伊呂波半字豎相通, 伊呂波半字橫相通’ 등을 실어 놓은 것이다. 이때에 비로소 ‘오십음도(五十音圖)’의 가나학습이 사역원 왜학에 도입되었던 것이다(정광 1985). 오늘날 일본의 가나문자 교육은 ‘伊呂波’보다는 오십음도에 의존하는 바가 많으며, 문자의 순서도 ‘伊呂波’ 순보다는 오십음도순을 더 많이 따른다. 오십음도의 성립과 보급은 가나문자에 어떤 기준을 두어 통일시키려는 노력에 의한 것이다. 가장 오래된 오십음도는 『孔雀經音義』에 붙어 있는 것인데, 그 배열순서가 오늘날의 그것과 달랐다. 현재의 순서로 바뀐 것은 승(僧) 명각(明覺)의 『반음작법(反音作法)』(1033)부터라 하고, 오십음도가 통일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本居宣長の 『자음가자용격(字音假字用格)』(1774)이므로 이 오십음도가 초기의 왜학서에 수용될 수 없었음은 당연한 것이다. 『첩해신어』의 말미에 오십음도가 부재된 것도 중간본(1781)에서야 가능해진 것이다. 일본어 주음은 훈민정음을 이용하여 일본어 문자의 발음을 축자표음, 즉 전자(轉字, transliteration)하는 방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3.7 왜어유해(倭語類解): 18세기 후반

왜학에서도 『첩해신어』와 같은 일본어 강독을 위하여 어휘사전이 필요하였을 것이다. 『왜어유해』는 적어도 『몽어유해』와 비슷한 시기에 편찬되었을 것으로 추측한다. 『통문관지』 권7 ‘인물’홍순명(洪舜明) 조에 “(전략)倭語比諸方最難曉 公質于日本人雨森東 作長語及類解等書 用於課試(하략) (왜어는 제방(의 언어)에 비하여 제일 알기가 어렵다. 공이 일본인 아메노모리(雨森東五郎-雨森芳洲)에게 질문하여 ‘장어’와 ‘유해’를 지어 과시에 사용하였다)”라는 구절이 있으며 이 구절의 ‘유해’를 『倭語類解』로 보아 홍순명이 이를 편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유구(徐有榘)의 『루관고』(1796)에 “倭語類解 二卷 李朝司譯院官洪舜明 撰 別錄事物名目 以日本語釋之 日本官命及通信行程道記 院官玄啓根重訂 司譯院 藏 印紙二牒十八張(왜어유해 2권 이조 사역원 역관 홍순명의 편찬이다. 사물명목을 따로 기록하여 일본어로 풀이하였다. 일본의 관명 및 통신사행의 여정을 기록하였다. 역관 현계근이 증정하여 사역원에 소장하다. 인쇄하는 종이가 2첩 18장이다)”라는 기사가 있어 홍순명 편찬에 현계근이 증정한 ‘왜어유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홍순명이 지은 『왜어유해』는 오늘날 전하지 않고 후일 한정수(韓廷洙) 등이 수정하여 편찬한 『왜어유해』만이 2종 전하고 있다. 아마도 현계근의 증정본도 목관본으로 간행되지는 못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

4. 왜학서에 나타난 일본어의 한글 전사(轉寫) 표기

4.1 八行音 子音 表記

가나(假名)의 한글 전사 중에서 가장 복잡하게 표기되어 있는 것이 八行音이다. 일본어에서 八行音은 청음(淸音), 탁음(濁音), 반탁음(半濁音)의 세 가지로 표기되고 있고, 왜학서에서도 위 세 가지가 구분되어 가장 복잡한 표기를 나타낸다.

(1) 청음 표기

	は	ひ	ふ	へ	ほ
伊路波	바[fa] 하[ha]	비[fi] 피[pi]	부[fu] 후[hu]	혜[fyəi]	부[fu] 호[ho]
捷解新語(原刊)	화[hoa]	피[pi]	후[hu]	페 [pyəi] 피[pyə]	호[ho]
方言集釋	화[hoa] 하[ha]	히[hi]	후[hu]	혜[hyəi]	호[ho]
捷解新語(改修)	화[hoa] 하[ha]	히[hi]	후[hu]	혜[hyəi] 혀[hyə]	호[ho]
捷解新語(重刊)	화[hoa] 하[ha]	히[hi]	후[hu]	혜[hyəi]	
倭語類解	하[ha]	히[hi]	후[hu]	혜[hyəi]	호[ho]

- ‘빙’은 『伊路波』가 간행될 당시 국어에서는 소멸단계에 이르렀으나 외국어 표기에서는 원발음을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 표기는 실제 단어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하피후호’로 다르게 전사된다. 이는 ‘빙’이 八行音이 양순마찰음과 동시에 ‘ㅎ’으로 전사됨으로써 후두마찰음임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은 『伊路波』로부터 八行音이 ‘h’음화를 겪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 『첩해신어』에서는 八行音이 양순마찰음[ɸ]에서 후두마찰음[h]으로 변해가는 과도기적 상태를 보여준다.

- 『첩해신어』의 개수중간 및 『방언집석』, 『왜어유해』에서 八行音은 후두마찰음[h]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2) 탁음 표기

	は	ひ	ふ	へ	ほ
伊路波	~ㅁ바				
捷解新語(原刊)	ㅁ바 ~ㅁ바	ㅁ비 ~ㅁ비	ㅁ부 ~ㅁ부	ㅁ베 ~ㅁ베	ㅁ보 ~ㅁ보
方言集釋	~ㅁ바	~ㅁ비	~ㅁ부	~ㅁ베	~ㅁ보
捷解新語(改修)	ㅁ바	ㅁ비	ㅁ부	ㅁ베	ㅁ보

탁음 표기에서는 일본어의 탁음을 전사하기 위해 새로운 표기 방식을 고안하였는데, 이는 탁음 앞에 존재했던 비모음(鼻母音)의 특징을 이용한 것이었다. 일본어의 비모음이 쇠퇴함에 따라 표기에 있어서도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4.3 ‘빙’과 ‘△’의 표기

‘빙’과 ‘△’은 국어 표기에서는 이미 소실된 문자였으나 왜학서에서는 그대로 사용되었다.

‘빙’은 양순마찰음 [ϕ]의 음가를 보여준다. ‘△’은 [z]의 음가를 보여주며 왜학서 전체에 공통된다.

- (1) ‘빙’은 『伊路波』에만 나타난다.
- (2) ‘△’은 모두 ざ行音 전사에 사용하고 있다.

4.4 구개음화 표기

일본어의 한글 전사에서 나타나는 구개음화 현상은 일본어와 한국어의 구개음화 현상이 복합되어 있는 문제이다.

(1) 일본어의 た・つ音의 표기

① 『이로파』	ち	디	つ두
② 『첩해신어』	いち	이지	てうせん 죠우션(朝鮮)(3.15)
	きつかい	기주카이	てうせん 도우션(朝鮮)(3.12)
③ 『개수 첩해신어』			てうせん 도우션(朝鮮)(3.16)
④ 『중간 첩해신어』			てうせん 도우션(朝鮮)(3.19)
⑤ 『왜어유해』			てうせん 도우션(朝鮮)(하2)
⑥ 『방언집석』	上朝	죠우과이니유기마시자	(1.27)

- ① 일본어 た행의 구개음화의 반영으로 생각됨.
- ② 음성전사(音聲轉寫 phonetic transcription) 표기
- ③④⑤ 전자(轉字 transliteration) 표기

4.5 모음의 표기

가나 5모음 중에서 ‘あ’와 ‘い’ 계열은 한글 ‘아’와 ‘이’에 각각 전사되므로 문제가 없고 ‘う’ ‘え’ ‘お’ 계열 전사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1) ‘으’단 모음부 음주 표기

	伊路波	捷解新語(原刊)	方言集釋	捷解新語(改重)	倭語類解
う	루 우	우	우	우	우

	伊路波	捷解新語(原刊)	方言集釋	捷解新語(改重)	倭語類解
す	ㄴ수	수	스	스	스
つ	두	주	즈	즈	즈

가나의 ‘으’는 한글의 ‘우’로 대응되고 있으나 완전히 동가(同價)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伊路波』에서 ‘루’로 표기되는 것으로도 알 수 있으며, 치찰음(sibilants) ‘스’ ‘즈’ 다음의 ‘우’모음은 ‘으’모음으로 바뀌어 전사된다.

(2) ‘에’단 모음부 음주 표기

	伊路波	捷解新語(原刊)	方言集釋	捷解新語(改重)	倭語類解
え	예, 여	예, 여	예, 여	예	예, 에

	中古 日本語	中世 日本語	近世 日本語
え	e	ye	e

가나의 ‘에’는 ‘여’로 전사되었으나 ‘에’모음의 단모음화를 반영하여 ‘예’로도 전사되었다. 그러나 국어의 ‘에’모음의 단모음화에 따라 『첩해신어』의 개수분부터는 ‘예’로만 전사된다. 『왜어유해』에는 ‘예’표기가 많이 나타난다.

(3) ‘오’단 모음부 음주 표기

	伊路波	捷解新語(原刊)	方言集釋	捷解新語(改重)	倭語類解
お	오	오	오	오	오
こ	고	고 꼬	고 꼬	고 꼬	고 꼬 꼬
ほ	부 호	호	호	호	호
を	오(오오)	오	오	오	오

가나의 ‘ㅇ’은 훈민정음의 ‘오’와 대응된다. 그러나 음가는 단순히 [o]가 아니었던 것 같다. 『이로과』에서 ‘ㅁ’은 ‘부’와 ‘호’ 두 가지로 전사되고 있다.

5. 결어

훈민정음으로 표기한 사역원 사학(四學)의 외국어 표기 체계에는 일정한 전통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에 국어의 표기에는 사용하지 않았던 문자들을 사용하여 해당 언어의 발음에 가장 근접하게 표기하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 왜학서의 경우, 15세기 『이로과』로부터 시작된 일본어 표기의 전통은 17세기에 만들어지는 『첩해신어』와 18세기의 개수본과 중간본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쳤으며, 조일(朝日) 양국의 언어가 변화하는 과정을 상호간에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각각의 왜학서가 반영하고 있는 일본어의 방언적 요소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며, 이 문제는 한국어의 경우도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민정음은 ‘외국어음의 정확한 표기’라는 욕구를 채워 줄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문자였다고 생각하며, 다른 언어의 역학서들에 반영된 표기 체계와의 비교를 통해 더욱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參考資料>

- 『伊路波』(弘治五年 朝鮮板) 京都大學文學部 國語學國文學研究室 編
『原刊活字本捷解新語』(1990) 弘文閣 【奎1638】
『捷解新語』(2008)(奎章閣資料叢書語學篇9)서울大學校奎章閣韓國學研究院 【奎1639】
『改修捷解新語(本文・國語索引・解題)』(1987) 京都大學國文學會
『改修捷解新語(解題・索引・本文)』(1991) 安田章・鄭光共編. 서울: 태학사.
『重刊改修捷解新語(本文・國語索引・解題)』(1960) 京都大學國文學會
『重刊本捷解新語』(1990) 弘文閣 【奎3952 1 12】
『方言類釋』(1988) 弘文閣 寫本: 奎章(古0270 9) 【『保晚齋剩簡』第24 25册卷一~四】

『倭語類解(本文・國語・漢字索引)』(1958) 京都大學國文學會

參考文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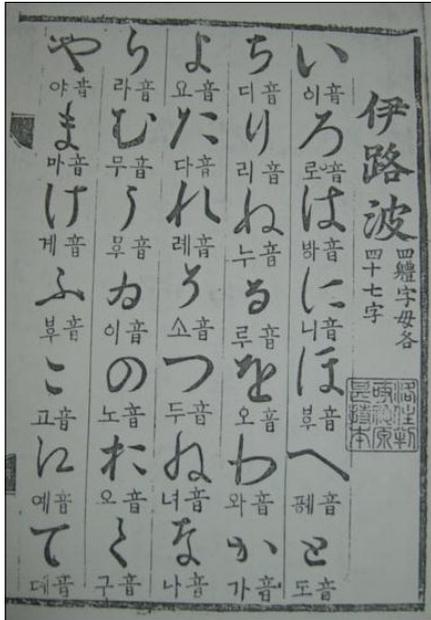
- 강신항(1987). 『訓民正音研究(增補版)』. 成均館大學校出版部.
- 송기중(1997). 「譯學書 研究의 現況과 課題(一)」, 『한국어문』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송기중(2001). *The Study of Foreign Language in the Yi Dynasty(1392-1910)*. 서울: 지문당.
- 송민(1968). 「방언집석의 일본어 ‘ハ’행음 전사법과 왜어유해의 간행시기」. 『이승녕박사 송수기념논총』. 297-309.
- 송민(2006). 「근대국어 음운사와 ‘가나’表記 資料」. 『국어사연구 어디까지 와 있는가』. 서울: 태학사. 385-404.
- 이기문(1965). 「成宗板 『伊路波』에 대하여」. 『도서』제7호. 을유출판사. 3-36.
- 이정수(1983). 『倭學書에 나타난 日本語의 한글 轉寫 表記』.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정광(1985). 「『첩해신어』의 伊路波와 『和漢名數』」. 『덕성어문학』제2집.
- 정광(1988a). 『사역원 왜학 연구』. 서울: 태학사.
- 정광(1988b). 『諸本集成倭語類解(解題國語索引本文影印)』 서울: 태학사 (國立中央圖書館本).
- 정광(1991). 「倭學書 『伊路波』에 대하여」. 『국어학의 새로운 인식과 전개』. 서울: 민음사. 142-161.
- 정광(2002). 「역학서연구」. 서울: 태학사.
- 정광(2004) 『(四本對照) 倭語類解』. 서울: J&C.
- 정광(2006a). 『훈민정음의 사람들』. 서울: J&C.
- 정광(2006b). 「왜학서 자료에 대하여」. 『국어사연구 어디까지 와 있는가』. 서울: 태학사. 429-458.
- 정승혜(2000). 『첩해신어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정승혜(2002). 「한국에서의 외국어 교육에 대한 역사적 고찰」. 『이중언어학』21. 이중언어학회. 285-311.
- 정승혜(2003). 『조선후기왜학서연구』. 서울: 태학사.
- 정승혜(2007). 「『捷解新語』 第2次 改修本の 刊行年代에 대하여」. 『일본문화연구』. 동아시아일본학회. 167-188.
- 조강희(2004). 「왜학서에 보이는 일본어음의 비교연구」. 『일어일문학』21집. 115-135.
- 조강희(2006). 「왜학서 축음에 표기되어 있는 한글 음주의 특징과 문제점」. 『일어일문학』30집. 93-109,

훈민정음학회 2009 전국학술대회 발표논문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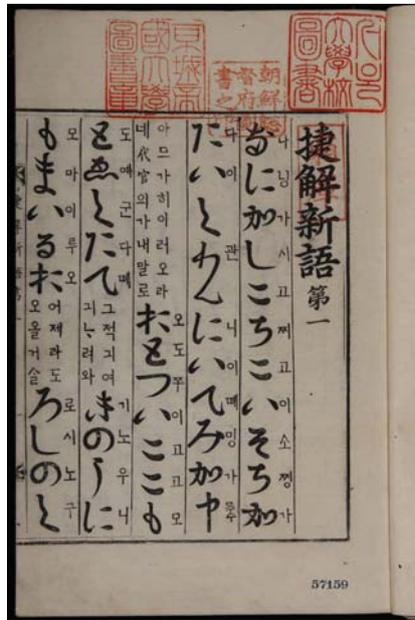
조강희(2008). 「왜학서에 표기되어 있는 한글 음주에 관한 통시적 연구」. 『일어일문학』37
집. 135-154.

安田章(1980). 『朝鮮資料と中世國語』. 日本: 笠間書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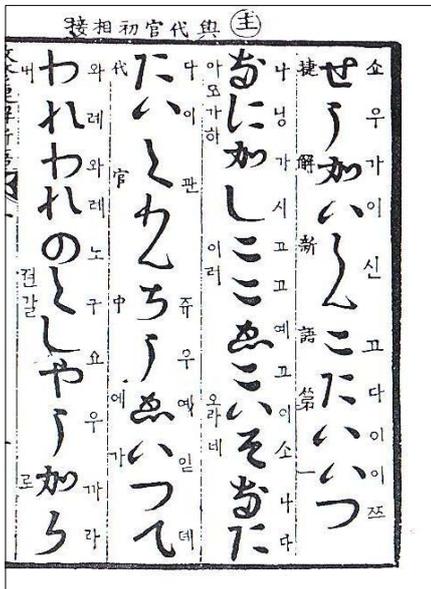
<부록> 서영(書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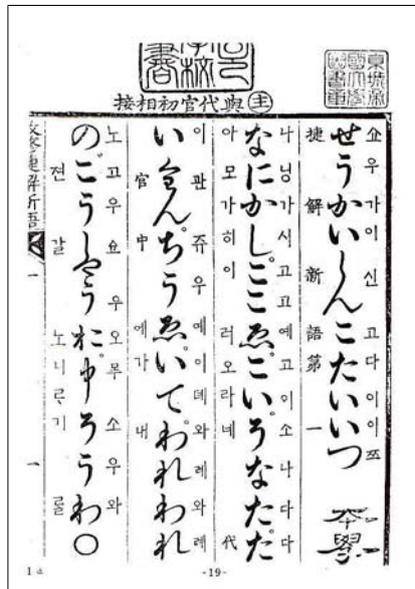
成宗23년(1492)朝鮮板 伊路波 1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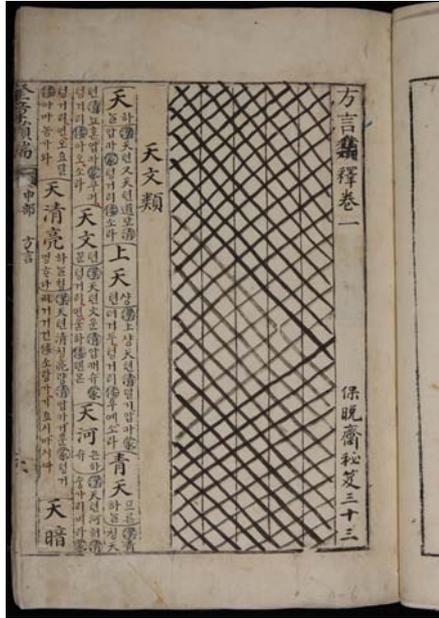
첩해신어 원간본(1676) 권1.1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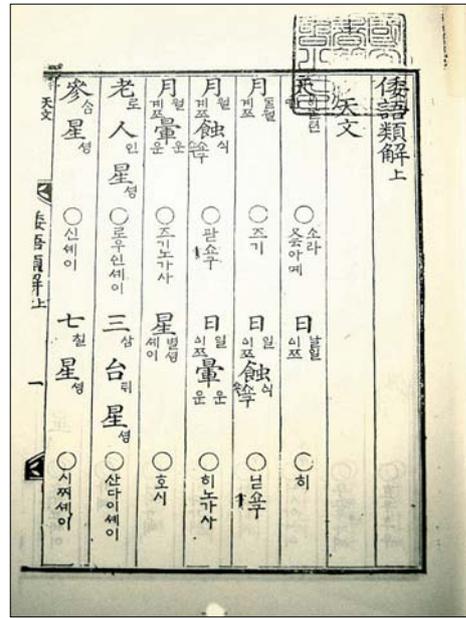
개수첩해신어: 1차 개수본의 복각본
卷1.1a



중간첩해신어: 2차 개수본 복각본
卷1.1a



방언집석 본문 1a



왜어유해 상권1.1a